



김제시 광활면 지사협,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

김제시 광활면(면장 최여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은미)는 지난 7일 초복을 앞두고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활면 화합관에서 삼계탕과 밀반찬을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재료를 손질해 준비한 삼계탕과 무장아찌, 우뭇가사리 오이 냉채, 과일 등으로 만든 꾸러미를 어르신들 가정에 직접 전달하며 여름철 건강과 안부를 살폈다.

최은미 민간위원장은 “소외되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이 여름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정이 넘치는 광활면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향교동 지사협, 어려운 이웃에 보양꾸러미 전달

남원시 향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부곤, 이하 협의체)에서는 지역 내 홀몸 어르신 및 경제적 어려움 겪는 이웃 100가구에 보양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보양꾸러미는 협의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향교동 복지허브와 연합 모금사업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초복을 맞아 삼계탕을 직접 조리해, 빵·야쿠르트·김치 걸절이와 함께 만들었다.

협의체 김부곤 위원장은 “구슬땀을 흘리며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삼계탕과 음식을 준비했다”며, “무더위로 지친 우리 이웃들이 영양 보충하며 이웃 간의 정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 신태인농협, 신규조합원 교육 실시

정읍 신태인농협(조합장 황휘종)은 지난 6일 본점 2층 대회의실에서 신규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 안성 교육원과 함께 ‘2023년 신규조합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태인농협 현황설명을 시작으로 농협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토대로 농협 안성교육원 변성섭 교수가 ‘협동조합의 이해 및 신규조합원의 역할’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황휘종 조합장은 “이번 교육을 통한 협동조합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및 농업경영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조합원의 참여로 공동행동을 고도화함으로써 농협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곧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군후계농업경영인 가족대회 개최

안전한 먹거리 생산 · 농권 보호 위한 농업경영인 역할 다짐 · 화합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회장 황인준)는 지난 7일 진안군여체육관에서 제3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 가족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임원 및 내빈, 회원 4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농업경영인의 역할을 다짐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대회는 개회식, 우수농업경영인 시상, 진안愛 주 소갓기운동 동참 결의 등 기념행사와 회원들의 친목을 다지는 어울 및 화합한마당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한 가족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회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행사에는 노창득 전라북도 후계농업경영인회장, 자매결연을 맺은 상주시 남광우 회장을 비롯한 30여 명의 회원들도 함께했다.

황인준 한농연 진안군연합회장은 “우리 농업·농촌은 현재 인구감소, 농촌인력난, 기상이변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데, 이번 가족대회를 통해 그간의 모든 근



심, 걱정을 잊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 농업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최우선으로 행기고 농업인을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경찰서, 사회적 약자 보호 · 지원 후원 행사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지난 6일, 국제로타리 3670지구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미성년 자녀 4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후원 행사를 진행했다.

그동안 남원서는 사회적 약자 가정을 발굴해 전북공동대 응협의회에 지원을 요청, 이에 국제로타리 3670지구(총재 이기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소식을 듣고 냉장고, 어여칸, 세탁기 등 생활용품과 4남매를 위한 공부방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돋고 싶어 1000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특히 후원 과정에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성청소년과장(경정 강영훈)의 요청으로, 남원로타리를(회장 김경주, 허성민)에서 정기적으로 생필품과 식사권 등의 후원을 약속했다.

한편 김진형 서장은 “지역공동체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알뜰천하주유소 이정복 대표, 김제시에 장학금 1000만원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성주)은 김제시 신풍동 소재 알뜰천하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정복 대표가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세월 김제시에 거주하며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도움을 받아 그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나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생 나눔과 선행을 실천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라면서 장학금 기탁의 뜻을 예전부터 마음에 담고 있었으며, 특히 김제사랑장학재단에서 올해부터 장학금과 격려금을 신설· 확대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그 뜻을 함께 하고자 훈훈한 마음으로 기탁의 뜻을 실천하게 되었다고 한다.

정성주 이사장은 “지역의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기탁해 주신 장학금은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꿈을 이루고 김제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성장하는 과정의 소중한 씨앗이자 디딤돌이 될 것이며, 더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와 재단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하계수련회 가져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지회장 소득수)가 지난 6일, 이아면의 아리원에서 2023년 지체장애인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는 지체장애인들의 자립 및 사회 참여 의지를 고취 시키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지역 지체장애인과 협회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 대회,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진드기 바이러스 주의하세요”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집중 발생 시기를 맞아 애생 진드기 매개로 한 쪼꼬미가루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이어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린 경우 1~2주의 잠복기를 거친 후 발열, 근육통, 설사, 식욕부진,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치료제와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아 증상 발현시 즉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예방법은 △야외 활동 시 뜨자리 사용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도록 주의 △야외작업 시 긴 소매, 긴 바지 착용하고 기피제 뿌리고 활동 △작업·외출 후 바로 샤워, 입었던 옷은 잘 털어낸 후 세탁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